국어보어에 관한 연구[1)]

최 형 기
(원광대학교)

Choi, Hyung - Ki. 2000. On the Complement of Korean. *Journal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8*(3), 203-217. Complements of Korean sentencial components have many different views. A complement is required for Semantical supplement when a verb also does not bring the meaning to a conclusion. Therefore, the complement demanded is caused by semantical features of verbs. My proposal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Following subject in double subject sentence, is a complement, only it composes of eccentricity structure. (2) Sentencial components composed of a in complete transitive verb are complement, too. Because they have a function as essential component of sentence. (3) A adverbial word is complement, as well. **(원광대학교)**

1. 서론

1.1 문제제기

국어의 문장성분 가운데서 그 규정이나 범위에 이견이 많은 것이 보어이다. 보어를 인정하는 문법체계가 있는가 하면 보어를 인정하지 않는 문법체계가 있고 보어를 인정하는 체계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개념규정과 범위가 다양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어의 문제를 검토하고 보어가 보여주는 의미적 특성에 근거하여 보어의 범위를 기술하고자 한다.

보어란 한 문장에서 동사 단독으로 의미가 완결되지 못하고 부족할 때 의미상의 보충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문장성분이다. 그러므로 보어는 한 문장 구성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성분이다. 그런데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특성에 달려 있다. 즉 동사가 의미상 홀로 서술되지

1. 이 논문은 1996년도 원광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못하는 데서 요구되어지는 필수적 요소가 보어이다. 그러므로 보어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동사의 의미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사의 의미특성을 중심으로 보어설정의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1.2 보어연구의 개관

국어보어에 대한 연구는 초기문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양한 논의를 불러 일으켜 왔다.

국어의 문법범주 가운데서 보어는 그 분류체계조차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보어를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성분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와 보어를 문장성분으로 설정할 때 무엇을 어디까지를 보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보어의 범위설정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를 요약해 보면 보어를 부정하는 견해는 보어를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보지 않고 보어를 부사어나 관계어 또는 주어로 취급하였는가 하면 목적어에 보어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2] 또한 보어를 인정하는 견해는 보어의 범주 설정에 대해 많은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어와 부사어의 혼용, 보어에 체언 서술어의 포함, 보어와 서술어의 혼용 등 보어의 범위를 넓게 보는가 하면 '아니다, 되다' 앞에 오는 단어만을 보어로 인정하여 보어를 좁게 보기도 하였다.[3]

---

2. 보어를 부정한 견해에는 주시경(1913, 1946) 김윤경(1946, 1957), 강복수 · 유창균(1967), 허웅(1967), 서정수(1971)가 있다.주시경(1913,1946), 강복수 · 유창균(1967)에서는 부사어로 보았고 (달빛이 히기가 눈과 같으오), 김윤경(1946,1957)에서는 관계어로 보았으며(맘이 달과 같다/구름이 비가 된다), 또 허웅(1967)에서는 주어로 취급하였으며(이것은 내가 아니다/물이 얼음이 된다), 김민수(1960)에서는 보어를 목적어에 포함시켰다.

3. 보어를 인정한 견해에는 유길준(1909), 이필수(1922), 이규방(1923) 박승빈(1913, 1935), 최현배(1937), 정준모(1946), 정인승(1946), 이희승(1949, 1956, 1968), 이숭녕(1956, 1967, 1968), 유목상(1966). 김민수 · 이기문(1968), 김미수 (1971), 이길록(1974), 성광수(1974), 고영근 · 남기심(1985)이 있다. 유길준(1909)에서는 보어와 부사어가 혼용되었고 (구름이 산에 덥히었다. 구름이 연긔와 갓흐다), 이필수(1922)에서는 관형어와 부사어를 보어로 보았으며 (큰 아희가 굵은 나무를 깊이 심었다), 박승빈(1913)에서는 보어에 체언 서술어를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며(발이 논이 되었다/그

또한 보어를 설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의해 보어의 범위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왔다.

하나는 격조사 형태를 기준으로 설정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동사의 의미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경우이다.

보어의 범위설정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표면구조상의 격을 전제로 한 격형태의 고찰로 동사의 의미특성을 비교적 중시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보어를 인정하고 범위설정의 기준도 동사의 의미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보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론

2.1 보어를 부정하는 견해

보어부정론자들이 보어를 어떻게 다루어 놓았는가를 살펴 보자.

보어를 인정하지 않은 분들로는 이은정(1968), 강복수·유창균(1968), 허웅(1979) 등을 들 수 있다. 이은정(1968:125-30), 강복수·유창균(1968:14-16)은 문장의 성분을 1)주어 2)서술어 3)목적어 4)관형어 5)부사어 6)독립어로 분류하여 보어를 문장의 성분으로 조차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어의 범위 속에 논의되던 것들은 주어 또는 부사어로 처리하였다. 다음 (1)-(4)를 부사어로 처리하였다.

(1) ㄱ) 올챙이가 <u>개구리가</u> 된다.
ㄴ) 밭이 <u>논으로</u> 변한다.
(2) ㄱ) 형은 <u>동생과</u> 다르다.

사람이 <u>會長</u>이오), 이희승(1949, 1956, 1968)과 이숭녕(1956)에서는 서술어를 보어에 포함시켰다.

이희승(1949, 1956, 1968)	물이 <u>어름이</u> 된다.
	철수는 서울로 <u>가게</u> 되었다.
	복동이는 그림을 <u>그리려</u> 한다.
이숭녕(1956)	순이를 학교에 <u>가게</u> 하였다.
	나도 산에 <u>가고</u> 싶다.
	수길이가 <u>반장이</u> 되었다.

ㄴ) 설마 내가 너만 못하랴.
(3) 그분은 회사 대표로서 참석하였습니다.
(4) 이런 것을 비극이라 한다.

허웅(1979:112-30)은 주성분을 주어, 목적어, 위치어 , 대비어, 방편어, 인용어, 서술어로 분류하고 부속성분을 관형어, 부사어로 나누었다.
보어를 인정하는 견해는 보어로 보고 있는 성분에 해당되는 말의 성분명칭을 여러가지로 나누어 다루어 부사어와 별개의 것으로 설정하였다.
아래의 (5), (6), (7)을 대비어, 방편어, 인용어로 취급하였다.

(5)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6) ㄱ) 그는 영희를 아내로 삼았다.
ㄴ) 그이는 우리들의 대표로서 그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7) 저는 복동이라 부릅니다.

서정수(1971:27)는 보어의 성분에 대하여 주어로 취급하였다.

(8) 그 사람의 아들이 병정이다.
(9)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10) 물이 얼음이 된다.

특히 (9)를 「그것은 진리다」의 부정변형의 결과 생성된 표면구조에 불과하다고 보고 주어로 취급하고 있다.

2.2 보어를 인정하는 견해

최현배(1961:729~734)는 지정사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말을 보어로 처리하였다.
실질관념과 빈위(賓位)관념을 맺는 계사(Copula)「이다」와 「이다」의 부정형인 「아니다」만을 잡음씨(지정사)로 설정하여 불완전(형식) 용언으로 잡고 이 말을 기워주는 말을 기움말이라 규정하였다.

(11) 그 사람의 아들이 병정이다.

(12)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명권(1968)은 불완전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말을 보어로 보는 체계이다.
체언 또는 용언의 명사형에 「이(가), 과(와)」 등의 조사가 붙어 불완전자동사나 불완전형용사의 서술을 보충하는 주격보어에 국한하는 경우다.

(13) 물이 얼음이 된다.
(14) 이것은 개가 아니다.
(15) 구름이 솜과 같다.

유목상(1966)은 개별적인 용언의 특성에 의하여 보어를 설정한 체계이다.
따라서 불완전자동사, 불완전형용사의 서술을 보충하는 주격보어에다 불완전타동사의 서술을 보충하는 목적격보어까지를 보어로 보는 경우다.

(16) 나는 그대를 아내로 삼는다.
(17)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김민수(1971:92~100)는 이른바 이중주어구문까지 포함하여 주격보어, 목적격보어에다 서술어에 필요한 것으로, 그것이 없으면 술어의 뜻이 불완전하게 되는 요소를 보어로 보는 경우다

(18) 그가 책을 내게 준다.
(19) 개가 소에게 채였다.
(20) 그들이 정보에 어둡다.
(21) 학생이 배움에 열성이다.

이희승(1968)은 자동사나 의존형용사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말을 보어로 보는 체계이다.
서술어에 꼭 필요한 한정어를 보충어라 규정하고, "관념적인 뜻을 가진 자동사나 의존형용사 앞에 쓰임"이라 요약하여, 소위 용언의 부사형(아, 게, 지, 고)을 보어로 보았다.

(22) 철수는 서울로 가게 되었다.

(23) 복동이는 그림을 <u>그리려</u> 한다.
(24) 그 사람은 <u>오지</u> 않는다.
(25) 금강산에 <u>가고</u> 싶다.

2.3 보어에 대한 제설 검토

2.3.1 최현배설(최현배의 보어)

최현배(1968)은 실질관념과 빈위(賓位) 관념을 맺는 계사(Copula) 「이다」와 「이다」의 부정형인 「아니다」만을 지정사로 설정하여 불완전(형식) 용언으로 잡고 이 말을 기워주는 말을 보어라고 규정하였다.

즉 지정사는 원래 실질(바탕)이 없고 다만 풀이하는 힘만을 가진 형식용언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완전한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품사(체언)를 가지고 그 빠진 바탕을 기워여 하는데 이러한 지정사의 부족한 실질을 기워 채우는 말을 보어라는 것이다. 이는 「이다」를 용언의 일종인 독립품사로 설정하여 인구어에 있는 계사와 동일하게 보려는 태도다.

(26) 그가 <u>학생</u>이다.
(27) 그가 <u>학생이</u> 아니다.

(26), (27)에서 이른바 지정사 '이다'와 '아니다'가 서술어이며 이를 보충해주는 말 '학생'이 보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보격조사는 '아니다' 앞의 체언에 붙는 '이/가'만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로 논란이 되어 왔다.

첫째로 「이다」는 격의 일종으로 서술격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둘째로 「이다」는 체언의 어미로 보아 그것이 활용하면 서술어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셋째로 「이다」, 「아니다」를 잡음씨로 보아야 하는가?

그러나 아직도 「학생」이 보어요 「이다」만이 서술어라는 데에서는 합리적인 점을 찾을 수가 없다.

설령 (26)이 긍정문이고 (27)이 (26)의 부정문임에도 문장의 구조상에서

오는 합리적인 점은 「학생이다」가 서술어라는 점이다.

2.3.2 이희승설(이희승의 보어)

이희승(1968)은 문장의 서술어로서 완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동사와 이른바 의존형용사 앞에 오는 말을 보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보어란 불완전성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에 의미상 보충될 대상으로 귀결되는 요소라고 보려는 태도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체계이다.

(28) 철수는 서울로 가게 되었다.
(29) 그 아이는 걷지 못한다.
(30) 금강산에 가고 싶다.
(31) 복동이는 그림을 그리려 한다.

(28), (29), (30), (31) 예에서 보듯 이른바 '본용언+보조용언' 구분의 일부 '되다, 못하다, 싶다, 하다' 앞에 오는 성분을 보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되다, 못하다, 싶다, 한다' 만이 그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히려 「가게, 걷지, 가고, 그리려」가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1)에서 목적어인 '그림을'에 대한 서술의 기능은 '그리려'가 맡고 있다.

그렇다면 뒤에 오는 보조용언과 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3 유목상설(유목상의 보어)

유목상(1966)은 국어의 서술사는 동사, 형용사이며 이 서술사에 의하여 문형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보어를 설정하였다.

즉 동사는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 완전타동사, 불완전타동사로 나누고 형용사는 완전형용사, 불완전형용사, 의존형용사로 분류해서 완전타동사가 목적어를 세우는 듯이 불완전자동사나 불완전타동사도 불완전성을 기워주는 보어를 설정하여 근간성분의 하나로 처리하였다.

동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어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형은 서술어가 결정한다」 즉 기본문형은 서술어의 의미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며 그렇게 본다면 목적어나 보어는 공히 동궤의 것으로 서술어의 불완전성을 기워주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다

즉 보어는 목적어와 대등한 자리에 있는 말로서 목적어와 보어는 '이퀄표(=)'로 연결될 수 있는 말이라 했다.

따라서 문장구성에 있어서 기본 성분은 서술어가 표시하는 성질과 어의의 유형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며 국어에 있어서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인 것이다.

그리하여 동사를 자동사, 타동사, 또 그것을 완전, 불완전동사로 형용사, 완전자립, 불완전자립, 의존형용사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서 불완전용언은 보어를 취해야 명제가 구성되는 것으로 「주어+보어+서술어」 및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의 두 형식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어는 「이, 와(과), 로(으로), 이라(고)」와 같은 격조사를 취한다는 점과, 주어 또는 목적어와 상응되는 자격을 지닌 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3.4 성광수설(성광수의 보어)

성광수는 Fill more에 의해 제기된 격문법론적 관점에 의해 국어의 기본격을 10격[4]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격들의 표면구조화 과정을 통해 주어화 목적어화의 변형을 고려하여 주어 및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보어에 대한 문제도 부사어와 구분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보어는 동사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즉 동사에 대한 격구조자질의 결정이 동사와 공존할 수 있는 격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이상 필수적인 격을 다 보어로 취급할 수 있는 광의의 보어와 주어 목적어화에서 제외된 필수격을 보어로 정하는 협의의 보어로 정리할 수 있다하여 보어의 개념을 「주어, 목적어 이외 문내 필수 성분으로서의 문의 뜻을 보완하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동사의 격구조자질에 필수적인 격이긴 하나 주어화나 목적어화가 불

4. 국어의 기본격을 위격[Agent], 여격[Dative], 구격[Instrument], 객격[object], 공격[comitative], 화격[sociative], 원격[source], 달격[Goal:목표격], 처격[Locative], 시격[Time], 노격[path]의 10격을 설정함

가능한 것이 보어라는 것이다.

(32) 딸이 어머니와 닮았다.
(33) 철수가 명자에게 책을 주었다.
(34) 선생이 학생들과 논쟁(을)한다.
(35) 영자가 수리(계산)에 밝다.
(36) 사랑이 증오로 변하였다.

이들은 필수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문인데 이들 격은 내면구조에서 표면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주어, 목적어가 되지 못하고 이들을 부사어로 처리할 수 없어 보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3.5 허웅설(허웅의 보어)

허웅(1979)은 보어를 설정하지 않았다.

허웅(1979)은 주성분을 주어, 목적어, 위치어, 대비어, 방편어, 인용어, 서술어로 분류하고 부속성분을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누었다. 비교나 공동을 나타내는 말을 대비어로, 시간, 장소, 원인, 방향, 출발, 상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방편어로 인용을 나타내는 말을 인용어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37) 주 어: 물이 얼음이 된다.
(38) 서술어: 저것이 집이다.
(39) 위치어: 부산서 왔다.
(40) 대비어: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41) 방편어: 낫으로(써) 풀을 벤다.
(42) 인용어: 저는 복동이라고 부릅니다.

2.4 주어와 보어

이중주어문의 후행주어를 보어에 포함시키는 견해로는 김민수, 이기문(1968 : 42.102), 김완진 · 이병근(1979 : 109.40)이 있다.

(43) 코끼리 코가 길다.

(43)의 밑줄친 '코가'를 보어로 보는 것인데 후행주어와 보어의 구별은 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 다르다 했다.

즉 (43)에서 밑줄친 '이/가'가 주격조사인가 보격조사인가 하는 문제는 그 형태로 따질 일이 아니라 그 위치로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44) ㄱ. 물이 얼음이 된다.
ㄴ. 얼음이 물이 된다.
(45) ㄱ. 코끼리가 코가 길다.
ㄴ. 코가 코끼리가 길다.
(46) ㄱ. 밤이 낮과 같다.
ㄴ. 낮이 밤과 같다.

(44)-(46)에서와 같이 주어와 보어의 위치를 바꾸면 (44)와 같이 그럴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위치에 따라 주어는 보어가 되고 보어는 주어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주어문의 후행주어를 보어로 설정한 사람은 김완진·이병근 (1979 : 109, 40)이다.

이 체계에서는 소위 후행주어를 보어가 아닌 주격보어로 지정하고 문장 안에서 주어와 논리적으로 대등한 자리에 있는 보어를 말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의 문장에서 주어와 보어가 비슷한 형식인 체언구를 구성하여도 그 결합되는 순서가 바뀌지 아니한다 하였다.

아래 (47)은 비문이며 (48)은 전혀 다른 문장이 되며 (49)은 의미상 미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47) ㄱ. 꽃이 색깔이 곱다.
ㄴ. *색깔이 꽃이 곱다.
(48) ㄱ. 물이 얼음이 된다.
ㄴ. 얼음이 물이 된다.
(49) ㄱ. 기린은 목이 길다.
ㄴ. 목은 기린이 길다.

이렇듯 한문장이 이중주어문인지 아니면 보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인지가 구분되어질 때 보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그런데 주어는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요 보어는 술어의 의미완성을 돕는 말이다.

한문장을 '주부+술부'로 나눌 때 주어는 주부에 보어는 술부에 속한다. 문제는 이들이 동일한 격조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격형태를 가지고는 이들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50) 철수는 학자가 되었다.
(51) 철수는 학자가 아니다.
(52) 토끼는 앞발이 짧다.
(53) 이 칼은 끝이 휘었다.
(54) 그 옷은 재가 묻었다.
(55) 그는 사랑이 필요하다.
(56) 이 나무가 싹이 돋는다.
(57) 한강은 물이 불었다.

이상 예문의 표면구조는 「S→NP_1 Np_2 ±VB Aux」로서 NP_2를 제거하면 비문법적이 문장이 된다.

서정수(1971:1~28)는 이중주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변형규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기호화하면

N_1-는(은) N_2-이 V →
- A N_1-의 N_2-이 V
- B N_2 이 N_1-에(에게) V

여기에서 (50)과 (51)는 A와 B처럼 되지 않는다.

(50) 철수는 학자가 되었다. →
- 철수의 학자가 되었다.(×)
- 학자가 철수에 되었다.(×)

(51) 철수는 학자가 아니다.→
- 철수의 학자가 아니다.(×)
- 학자가 철수에 아니다.(×)

(52), (53)은 A의 변형이 가능하다.

(52) 토끼는 앞발이 짧다. → 토끼의 앞발이 짧다.(○)
(53) 이 칼은 끝이 휘었다. → 이 칼의 끝이 휘었다.(○)

(54), (55)은 B의 변형이 가능하다.
(54) 그 옷은 재가 묻었다. → 재가 그 옷에 묻었다.(○)
(55) 그는 사랑이 필요하다. → 사랑이 그에게 필요하다.(○)

(56), (57)은 A, B 두 변형이 가능하다.
(56) 이 나무가 싹이 돋는다. 이 나무의 싹이 돋는다.(○)
이 나무에 싹이 돋는다.(○)
(57) 한강은 물이 불었다. 한강의 물이 불었다.(○)
한강에 물이 불었다.(○)

이상에서 (50)과 (51)는 보어문이고 (52)~(57)은 이중주어문이다.
즉 주부에 속하는 주어와 술부에 속하는 보어는 서로 이심적인 관계에 있으며 중복된 주어는 모두 주부에 속하므로 동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 요소가 '의'를 사이에 두고 동일한 의미로 서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은 동심구성을 이룬다는 증거가 되며, 그 두요소를 이중주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2.5 목적어와 보어(=목적격보어)

목적어와 보어는 문장구성에 있어서 주요성분으로서 서술어와 함께 서술구를 이루는 등위요소이다.
그러나 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문장성분으로서 목적격조사 '을/를'을 취하는 반면 보어는 타동사에 의해 지배되지 않은 성분으로 여러 형태의 조사를 취한다.
이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는 목적어만 있어도 완전한 문법문이 되는 완전타동사가 있는가하면 목적어만으로는 완전한 의미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또하나의 문장성분을 요구하는 불완전타동사가 있다.

(58) 새가 모이를 먹는다.
(59) 철수가 책을 읽는다.

이상에서 보듯 「먹다, 읽다」는 완전타동사로서 「모이를, 책을」이라는 목적어만 있어도 완전한 문법문이 된다.

(60) 영희는 숙이를 친구로 삼았다.
(61) 순이가 책을 돌이에게 준다.
(62) 어른이 문제를 아이와 의논한다.
(63) 순이는 돌이를 친구로 여긴다.

그러나 (60)~(63)에서는 밑줄친 부분을 생략하면 완전한 문법문을 이루지 못한다. 이는 「삼다, 주다, 의논하다, 여기다」 등이 목적어 만으로 완전한 의미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의 문장성분을 요구하는 불완전타동사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밑줄친 부분은 문의 필수성분의 직능을 지니고 있으니 보어로 보고자 한다. 만약에 밑줄 친 부분이 없다면 완전하고 독립된 의사전달이 되는 문법문이 될 수가 없다.

(60)-(63)의 밑줄친 부분을 종래에는 부사어로 보아왔는데 보어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수적 성분으로서 보어가 빠지면 불완전문이 되나 부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수의적 성분으로서 빠져도 완전문이 된다.

이렇듯 보어와 부사어의 구분은 그것이 필수적인 성분인가 수의적인 성분인가가 일차적 관건이다.

따라서 (60)-(63)의 밑줄친 부분은 생략하면 불완전문이 되기 때문에 술부구성에 필요한 근간요소로서 보어로 보고자 한다.

2.6 부사어와 보어

보어와 부사어는 문장의 구조에서 성분으로 보아 보어는 문장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성분인데 비해 부사어는 문장구성에 있어서 없어도 되는 부차적인 수의적인 성분이다.

즉 보어는 문장에서 생략을 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다른 뜻의 문장이 되는 반면에 부사어는 생략을 하여도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이는 보어는 문장구조에 있어서 근간성분이며 부사어를 부차성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사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격조사를 기준으로 부사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일은 합리적인 방법 같지는 않다.

(64) ㄱ. 구름이 변한다.
ㄴ. 구름이 비로 변한다.
(65) ㄱ. 어른이 속는다.
ㄴ. 어른이 아이에게 속는다.
(66) ㄱ. 아이가 편지를 넣는다.
ㄴ. 아이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67) ㄱ. 영희가 선물을 주었다.
ㄴ. 영희가 철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64)~(67)의 [ㄱ]의 문장들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즉 완전하고 독립된 의사전달이 되는 문법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ㄴ]의 밑줄친 부분들이 필수성분의 직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보어로 보고자 한다.
그래야만 필수성분과 부속성분과의 구별이 일관성이 있으며 문과 비문을 가려주는 기준도 서리라 본다.
결국 동사와의 공기관계에 따라 필수적인 격과 선택적인격으로 나누고 필수격을 보어로 포함시킬 때 일관성이 있고 간결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본고는 보어를 인정하며 범위설정의 기준은 격형태 위주가 아닌 동사의 의미특성을 중심으로 보어를 규정하여야 함을 밝혔다.
그럼으로써 그만큼 보어의 범위가 확대됨을 알았다.
이중주어문의 후행주어는 동심적 관계와 이심적 관계로 동심구성을 이루는 것은 이중주어이며 이심구성을 이루는 것은 보어로 보았다.
이는 주어는 주부에 속하며 보어는 술부에 속하는 이심적 관계에 근거하였다.
완전한 의미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의 문장성분을 요구하는 불완전타동사에 의해 이루어진 문장성분도 보어로 보았다.
이는 지금까지 부사어로 취급하였으나 보어와 부사어의 구분은 그것이 필수적 성분인가, 수의적 성분인가가 일차적 관건이다. 따라서 문의 필수성분의 직능을 지니고 있느니 보어로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종래에 부사어로서 필수성분의 직능을 지니고 있는 것들도 보어로 처리하였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필수성분과 부속성분과의 구별이 일관성이 있으며 문과 비문을 가려주는 기준도 서리라 본다.

참고문헌

강복수, 유창균. 1968. 문법 형설출판사.
박영순. 1986. 고교문법에서의 보어와 보문처리문제,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백주현. 1997. 국어보어에 관한 연구(Ⅰ). 새국어교육 6 한국국어교육학회.
———. 1997.국어보어에 관한 연구(Ⅱ). 새국어교육7 한국국어교육학회.
서정수. 1971. 국어의 이중주어 문제, 국어국문학 52호 국어국문학회.
성광수. 1979) 국어보어에 설정에 대한 재고, 국어국문학, 제62호-제64호 합본.
유목상. 1966. 국어보어에 대한 고찰, 중앙대 문과대학보 21집.
윤평현. 1995.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국어와 국어교육 박이정.
이광정. 1980. 한국어의 보어설정과 그 문형연구, 국어교육 37호.
이은정. 1968. 우리문법, 신천사.
정유진. 1995. 국어의 보어연구, 한국어학 연구 홍문각.
최현배. 1961. 우리말본.
최호철. 1995.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한국어학2 한국어학연구회.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